

리영화 선생

(13)

리영화 선생은 1917년 8월 15일에 원풍현강 북촌구역, 북촌시 (현재 비탈지산2리)에서 탄생 하셨습니다. 리영화 선생은 1936년에 울타지위보초 크시에서 철도 전문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1936년 북해 울타지위보초 철도관리국 정치부 공청 회 사업부장으로 일하셨습니다. 1937년 강제이주 이후 리영화 선생은 카사흐스탄에 도착하여 까라달 구역에서 노동에서 처음 철사학교원으로 다음 교부직임으로 일하셨습니다. 다음 리영화 선생은 1944년부터 1947년 사이에 까라달 공화국 아바이 명칭 사대를 졸업 하셨습니다. 대학졸업후 일년간 고등 철사학교원을 하시고

1948년 평남에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북한에 국제 공산당 임무수행 목적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북한에 도착한 리영화 선생은 1948년부터 조선전쟁이 개시 될때까지 평양 종합대학내 사회과학 연구원에서 교원 일을 하시고 다음 조선 전쟁에 참가하여 일년 동안 사단 정치부장으로 일하시고 1951년 1953년 간에는 조선인민군 제 4군단 정치부장으로 복무하셨습니다. 그후 정전이되자 1953년부터 청진 사대 교장으로 일하셨습니다.

리영화 선생은 사대 교장으로 사업하시던 7년간 함경북도 도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2도 함북도인민 위원회 대의원으로 계속 선출되었습니다.

리영화 선생은 1962년에 소련에 귀환하셨습니다.

1962년에 소련에 귀환후 일년간은 까자흐공화
국 기르보 명칭 국립종합대학 종합제산기 실장으로 일
하시고 다음 1963년 복귀 알라야타 인민경제대
학 종합제산기 실장 겸 교무주임으로 1982년까지 일
하시고, 다음 공화국 명칭 공훈년급생으로 휴식 생활
에 넘어갔다.

리영화 선생은 북한에서 일하시며 극기훈장, 자유
독립 훈장, 기하 메달 등을 수여 받았으며, 소련정복
을 축하 "위대한 조국전쟁시기에 기여한 공훈" 메달
과 "레닌 탄생 100주년에 대한" 메달, "위대한 조국
전쟁에서의 승리 30주년, 또 40주년" 메달 등을
수여 받았다.

2000년 1월 29일 하남권은.